

광주·전남 '출발 좋다'...1월 수출 20% '깡충'

수출 62.5억달러·수입 42.6억달러...무역수지 20억달러 흑자 기아차 월간 대미 수출 '역대 최대'...전남 화학공업제품 '선전'

광주·전남 새해 첫 무역 실적이 전년보다 개선되면서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수출은 전년 대비 20%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20억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역대 최대 생산물량을 뽑아낸 기아차가 연초에 그 기세를 이어간 덕에 월간 대미(對美) 수출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석유제품과 선박·화학공업제품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2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1월 광주·전남 수출액은 62.5억달러로 전년 같은 달(52.1억달러)보다 19.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입은 42.6억달러로 전년 같은 달(41.3억달러)에 견줘 3.1% 늘었다. 광주의 수입이 작년 1월(6.4억달러)보다 17.9% 줄어든 5.3억달러였지만, 전남이 전년(34.8억달러)보다 7% 늘어난 37.3억달러를 기록했다.

광주에서 중간재와 자본재 수입이 약 18% 감소했지만, 전남의 원수 수입 물량이 증가했다. 수출호조에 힘입어 지난달 무역수지는 전년(10.8억달러)보다 9.1억달러 많은 19.9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남만 놓고 보면 올 1월 수출액은 작년 1월보다 2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41.6%), 세종(31.4%), 경남(29%)에 이은 네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광주는 4% 증가율을 보이며 전국 평균(18%) 보다는 적었다.

지난 1월 무역수지 10.3억달러 흑자를 기록한 전남은 모든 산업부문에 수출액이 증가했다. 특히 주력 산업인 공산품 수출액(31.9억달러)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5.5% 증가했다.

광산물도 9.7% 늘어난 15.2억달러, 농림수산물 24.4% 증가한 0.5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전망에서 올해 전남 수출 개선의 주인공으로 지목된 K-푸드의 대표 '깡'이 전년보다 101.5% 증가하며 농림수산물 수출액 증가를 견인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휘발유, 나프타, 석유제품, 선박 및 부품의 수출이 늘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유제품은 전년보다 10.2% 늘어난 14.9억달러, 선박 및 부품은

370.4% 증가한 8.2억달러를 기록했다. 비중이 작기는 하지만 기타화학공업제품은 전년대비 1943.6%의 증가율을 보이며 1.1억달러 수출액을 올렸다.

국가별 수출 동향에서는 지난달 대중(對中) 수출이 13.9% 증가하며 21개월 만에 '+' 전환된 점이 고무적이다. 대중 수출은 정밀화학원료와 기타 화학공업제품 덕에 7.1억달러를 기록, 전체 수출의 15%를 차지했다.

지난달 광주의 수출은 광산물에서 크게 늘었다. 특히 소금이 작년 1월보다 4배 이상 늘어나면서 광산물은 387.8%의 증가율을 보였고, 김과 잎담배의 선전으로 농림수산물은 11.1% 증가율을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자동차 호조세가 수출 증가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는 1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를 기록

했다. 자동차는 7.5억달러로 전년보다 1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차전지(40.6%), 산업용 전기기기(24.6%), 타이어 등 고무제품(17.2%)도 수출이 늘었다.

반면, 냉장고(-6.6%), 자동차부품(-22.8%) 등이 감소했고, 반도체 수출은 14개월 연속 '-'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 광주의 국가별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대미(對美) 수출 실적이 5.7억달러로 월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대미 수출 역대 최고액은 기아차 광주공장 실적에 절대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수송기계와 산업기계가 수출 호조를 보이면서 호주(52.5% ↑), 멕시코(110.3% ↑), 튀르키예(199.9% ↑)를 상대로 한 수출 증가율이 높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배터리 생산' 포스코퓨처엠, 광양에 대규모 투자

고부가 하이니켈 NCA 양극재 공장 착공...연 5만2500t·전기차 58만대 규모

포스코그룹의 배터리 소재 계열사인 포스코퓨처엠이 경북 포항에 이어 전남 광양에도 고부가가치 하이니켈 NCA 양극재 전용 공장을 짓는다.

포스코퓨처엠은 22일 광양 울촌 제1산업단지에서 김준형 포스코퓨처엠 대표이사, 김익현 삼성SDI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 공장의 연간 생산능력은 5만2500t 규모로, 전기차(60kWh) 58만여대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이 공장에서 생산한 양극재는 삼성SDI에 전량 공급된다.

하이니켈 NCA 양극재는 니켈(N)·코발트(C)·알루미늄(A)을 원료로 제조한 양극재로, 에너지 밀도와 출력이 높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소재

이다. 최근 전기차 고성능화 추세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광양 양극재 공장 일부 라인에서 하이니켈 NCA 양극재 생산을 시작했다.

포스코퓨처엠은 올해 말 경북 포항과 내년 상반기 광양에 각각 전용 공장을 준공해 고부가가치 하이니켈 NCA 양극재를 연간 8만2500t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특히 포스코퓨처엠은 포항과 광양의 NCA 양극재 전용 공장에서 전기차 고성능화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는 단결정 양극재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단결정 양극재는 원료를 하나의 입자 구조로 결합해 배터리의 열 안정성과 수명 등을 높인 소재

로, 제조 과정에서 높은 기술력이 요구된다.

포스코퓨처엠은 지난해 3월 국내 최초로 NCMA(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 단결정 양극재를 양산한 데 이어 NCA 단결정 양극재 양산·공급 체제를 갖춰 고부가가치 기술 선도기업으로 위상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김준형 포스코퓨처엠 대표이사는 이날 착공식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환경 속에서도 고부가가치 제품인 NCA 양극재 생산체제를 확대하며 전기차 시장 성장에 차질 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이사는 아울러 "글로벌 탑티어 배터리 소재 기업으로 도약해 포스코그룹 전환형 에너지 소재 사업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주국세청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은 22일 지방청 국·과장과 관내 세무서장 등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상반기 광주국세청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양동구 청장과 참석자들은 상반기 중점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특히 양 청장은 2024년 국세행정 운영 방안에 따라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 등 상반기 주요 추진과제의 성공적 집행을 당부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올해 'K-전자세정 서비스'의 이용과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인과 영세사업자에게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세무검증 완화 등을 통해 능동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또 성실한 납세자의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절차 개선, 조사유예 등을 통해 조사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 대응하고, 고액·상습 체납행위 등 대해서도 현장추적을 강화할 방침이다.

양동구 청장은 "오늘 논의된 불필요한 일 감축, 비효율적인 업무관행 개선, 과도한 의존문화 지양, 세대별 특성 수용하기 등 광주청 발전을 위한 세부실천 방향에 대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고 협력하여 미래를 향한 발전의 길을 열어가자"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중기중앙회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무산 땐 헌법소원"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 촉구 "1년 이상 징역" 가장 못된 독소조항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2일 여의도 본원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중대재해 사고와 대표인 사업주 간 인과 관계 입증에 어렵고 대표에 대한 처벌이 과도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이 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모두 반대했다"며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 조항과 처벌조항이 있는데 딱 하나 없는 것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장 못된 독소 조항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공포

에 떨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단체가 헌법소원을 내자고 해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유영 로펌에 알아보니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었다"며 "국회 법사위원회 출신 정치인이 본인이 해보겠다고 해 맡겨볼까도 생각 중"이라고 소개했다.

김 회장은 헌법소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아예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헌법소원은 절박한 심정에서 검토하는 것"이라며 "유예하며 보완 입법을 만들 수도 있고 총선 결과로 누가 국회를 많이 장악하느냐에 따라 정당 정책으로 바뀔 수도 있고 변수는 많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29일 국회 본회의가 있더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대를 갖고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유예되는지 지켜보고 유예가 무산되면 중소기업 단체 행동 여부를 상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4월 총선에 앞서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안'도 발표했다.

제22대 총선 관련해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로 ▲중소기업 혁신 촉진 ▲노동시장 균형 회복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 ▲중소기업 활로 지원 ▲민생회복과 협업 활성화 등 5대 의제와 10개 과제를 제시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긱힘 걱정 뚝" 삼성, 쇠못보다 단단한 인덕션 출시

비스포크 인덕션 인피니트 라인 저소음·화력 자동 이동 기능 탑재

삼성전자는 23일부터 프리미엄 가전인 '비스포크 인덕션 인피니트 라인' 신제품(사진)을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비스포크 인덕션 인피니트 라인 신제품은 모스경도 8단계에 해당할 정도로 견고한 인피니트 글라스를 적용해 스크래치에 강한 것이 특징이다. 모스경도는 광석의 상대적 단단함을 총 10단계로 매긴 것으로, 8단계는 쇠못(6.5)보다 단단하다는 의미다.

인피니트 글라스는 국제 인증기관 인터텍으로부터 삼성전자의 기존 일반 글라스 대비 스크래치에 1.5배 강하다는 인증을 받았다.

글라스에 지문 자국이나 오염이 묻어도 손쉽게 깔끔하게 제거 가능하다.

4면 테두리에는 '슬립 메탈 프레임'이 적용됐다. 신제품은 전체 화구를 동시에 최대 3400와트(W)로 사용 가능한 화력을 갖췄다.

물이 끓는 상황을 감지하는 센서가 내장돼 국물이 넘치지 않도록 자동으로 화력을 조절하는 '물 끓음 감지', '간편식 국·탕 데우기' 기능을 새롭게 제공한다. 화력을 알아서 조절해 에너지 사용량도 35% 이상 저감할 수 있다.

스마트싱스와 연동하면 밀키트·간편식의 바코드



를 스캔하면 조리값을 설정하는 '스캔쿡' 등 다양한 솔루션으로 식사 준비가 간편해진다.

팬 소음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해 기존 대비 소음을 약 10데시벨(dB) 줄이고, 좌우 화구를 동시에 사용할 때는 고주파 소음을 기존 대비 60% 이상 저감하는 'DNC'(Dual Cook Noise Cancelling) 기술로 한층 조용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화구 타입에 따라 2개 모델로 출시하며, 이중 4개의 코일을 배치해 열을 고르게 전달하는 '콤팩트 플렉스존' 적용 모델에는 화력 자동 이동 기능이 새롭게 탑재됐다. 콤팩트 플렉스존에서 조리 용기의 위치를 옮겨도 기존 화력과 타이머가 그대로 이동해 다시 설정할 필요가 없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김종열 제36대 광주지방조달청장 취임

김종열(사진) 제36대 광주지방조달청장이 22일 취임했다.

김종열 신임 광주지방조달청장은 남원 출생으로 서울대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 대학교 행정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 조달청에 입직한 김 청장은 구매사업 국 소평물단가계약과장, 신기술서비스국 건설용역과장, 시설사업국 시설총괄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조달행정 전문가로 조직 내부에서 신망이 두텁고, 조직 관리능력도 탁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청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벤처·혁신 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고, 지속적으로 성장·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지역 사회의 동반자로서 지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조달서비스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해양에너지, 청년 일경험드림 참가자 모집

경영지원·신재생에너지 등 10명

(주)해양에너지(대표이사 정희)는 지난 19-20일 광주시와 전남대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 사업' 15기 참가자 모집을 위한 '드림 만남의 날'에 참여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양에너지는 경영지원, 고객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등 직무에 15기 드림청년 10명을 모집하며, 오는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간 함께 일하게 된다.

(주)해양에너지는 광주시와 전남 8개 시·군에 안착한 도시가스 보급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지역 내 그린뉴딜 및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64.27(+10.96)
▲ 코스닥	870.11(+6.04)
↓ 금리(국고채 3년)	3.342(-0.060)
↓ 환율(USD)	1328.70(-6.00)